

Dress Codes and Modest Apparel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Dress Codes and Modest Apparel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김용목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1.8.10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그림 | 이장용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35-0

■ 정가 1,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마귀가 기독교회에 주입해 놓은 현대 철학과는 달리, 사람은 겉모습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게 아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지표라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정은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경솔하게 다루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통념도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나의 겉모습은 올바르게 관리하되 남의 겉모습을 지나치게 판단하지는 않는 안목을 갖추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이 글에서 필자는 위대한 진리를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수백 년 동안 세상에서는 성경적 진리가 통용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남녀 옷차림에 대한 구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 둘째, 성경은 바람직한 옷차림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까지가 ‘거룩하고’ 딱 어디부터가 속되다는 식의 구체적인 선은 결코 긋지 않고 있다.

우리 일생에서 사람의 옷차림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옷의 용도는 보호나 단장 그 이상이다. 옷은 착용자의

신분을 알려 준다. 간호사가 소방수가 입는 방화복을 입고 있거나, 축구 선수가 발레리나의 복장을 하고 있거나, 어부가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고기를 잡고 있거나, 군인이 반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전투에 나간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이다.

필자의 교회는 플로리다의 데이토나(Daytona) 해수욕장 근처에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이륜차 타기 행사가 한 주 동안 열리는데, 그때마다 남녀를 불문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바이크를 마음껏 타면서 사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푼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탈을 표현하기 위해 입는 옷차림은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남과 다르며 어른의 통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유행 복장’을 갖춘다. 그 복장 역시 그들의 극복의 대상인 어른이 디자인하고 판매한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운동 경기의 팬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상징색과 로고 타입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이런 것들은 옷차림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성향과 소속을 나타낸다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옷차림은 주위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난 오늘 캐주얼하다.” “이번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정장을 차려입었다.” “난 오늘 침울하고 심기가 안 좋다.” 등. 우리는 아이들에게 뒤뜰에서 장난치며 놀던 복장으로 결혼식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가

르친다. 중요한 지인을 만나기 전에는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속물 기질이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옷차림과 옷의 가격으로 주변 사람을 분류하기도 한다.

요컨대 자신의 옷차림이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모든 분야에서 구분과 장벽이란 걸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세계 단일 종교를 도입하여 교파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세계 단일 정부를 도입하여 인종과 문화 구분을 없앤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도 오늘날은 문란하다. 가정을 파괴하고 덩달아 사회도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다. 수세기 동안 통용되어 온 소위 옷차림 규범(dress code)이 붕괴된 것이 서양 문화의 도덕적 타락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주범인지, 아니면 이것은 타락의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인지 선뜻 판단하기란 곤란하다. 그러나 정직한 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남녀 불문하고 다음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도달할 것이다. 유니섹스와 노출 패션은 이 나라에 득이 아니라 해를 끼쳐 왔다고 말이다.

타락의 발자취

옛날에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였다. 제도적인 기독교 국가는 결코 아니었지만, 그 국가의 지도

자와 시민들은 거의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믿었다. 1607년부터 1967년 사이의 기간 동안은 미국 구성원의 그 어느 누구도 부처나 마호메트나 크리슈나(힌두 교) 내지 대자연(Mother Nature)이 미국의 수호신이라고 믿지 않았다. 국가의 법정, 군대, 학교, 법률, 정부, 도덕 규범 등은 모두 거룩한 성경 기록이 정립해 놓은 진리에 근거하여 세워졌었다.

미국 역사의 첫 360년¹ 동안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념이 존재했으며, 그때는 남자가 입는 옷과 여자가 입는 옷 사이의 구별도 분명하게 있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저버린 뒤부터 그런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류학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진리 중 하나는 벌거벗음에 대한 특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벌거벗음은 어김없이 사라지고 그들은 적절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 곳에서는 남녀가 모두 위험한 수위의 노출을 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모르곤 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보르네오에서부터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없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면해 왔

¹ 독립 전쟁부터가 아니라 제임스타운 시절부터 센 헛수이다.

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집단은 한 치의 예외 없이 반드시 옷을 입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집단은 여전히 벗은 채로 지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이교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건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원주민의 문화에다 무력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 자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옷차림도 바뀐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²³

따라서, 남녀가 같이 해수욕장이나 나이트클럽에 스스럼없이 갈 수 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으며,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반쯤 벗은 차림으로 날뛰는 사람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문화가 암시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거부한다. 이 말을 굳이 우리의 입술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옷차림으로 우리의 의사를 곧장 표현한다.”인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부인할 수가 없다.

미국의 건국으로부터 1910년대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아무 인물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잘 살펴보기 바란다. 남녀를 불

² 이슬람이 들어서기 전부터 중동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다. 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신을 충분히 가리는 옷을 입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던 관습을 마호메트가 제도화하여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음악, 드라마, 심리학 따위를 근간으로 삼는 교회 교파들은 신자가 어떤 복장을 하고 오든 개의치 않는다고 으스댄다.

문하고 다리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원피스 드레스를 입은 남자나 바지를 입은 여자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어떤 관습이 바람직한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메인(미국 북동부의 주)에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미네소타에 이르기 까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꼭 신명기 구절을 인용한다거나 디모데 서신서에 적힌 대로 행동한 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최소한의 양심과 교양이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공공 장소에서 자기 몸을 가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옷을 입는 게 바람직하다는 막연한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뿐이다.

필자의 주장은, 우리 모두 100년 전의 옷차림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단지 명백한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던 규범을 어느 샌가 바꿔 버렸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 속으로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신 걸까?

1888년의 해수욕장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치자. 그 사진 속엔 100명의 남녀가 그 당시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남성 딱 한 명이 옷통을 다 벗은 반바지 차림이고 여성 한 명은 21세기인 오늘날 기준으로 ‘괜찮은’ 수준의 수영복 차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 두 사람만 완전히 튀어 보일 것이고, 그걸 본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럼,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88년에 동일한 해수욕장 모습

을 찍은 사진을 생각해 보자. 이제는 주위에 전부 반쯤 벗은 사람 들밖에 없는데, 아까와는 정반대로 한 남성은 해수욕장에서까지 흰 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있고 한 여성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튀어 보이고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동일한 나라의 국민이 어느 샌가 생각과 도덕이 바뀐 것에 대한 원인을 다시 한 번 자문해 봐야 한다. 국민 정서가 정반대로 뒤집힌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필자는 필자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 독자가 직접 생각해서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기를 원한다. 주후 33년에서 1913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 중 어느 누구도 공공 장소에서 맨살을 노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다고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실은 다음 둘 중 한 곳에 있게 된다. 지난 열 아홉 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틀렸거나,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틀렸거나. 당신은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를 타락시킨 두 전쟁

과거에 미국은 1차 세계 대전의 유럽 전선에 참전하였고 이 는 전후에 국제 연맹의 창설에 기여했다. 그런데 그때 참전 군인

들은 경제적 이득 말고도 다른 것을 프랑스에서 하나 얻어 왔다. 그것은 바로 하락한 도덕성으로, 이는 곧장 국민들의 옷차림을 비롯해 성에 대한 관념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 곧장 드러나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시각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미국은 전반적인 국민성이 정숙하고 순결했으며 한 번 결혼하면 평생을 갔다. 그리고 가톨릭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은 1920년과 1940년 사이에 완전히 문란해졌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미니스커트, 나시원피스, 재즈, 그리고 불륜과 별거벗음을 미화하는 할리우드 영화 따위를 처음으로 접했으며 이로부터 야기된 성 해방 운동도 경험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기도 모임이나 영적 부흥의 결과물이 아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가족과 교회와는 떨어진 채,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죽거나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바른 정신적 지주가 없는 상태에서 폭탄과 총탄과 독가스는 젊은이들의 신앙에서 사랑과 공허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대신 음란이라는 이세벨의 종교가 그들을 혼돈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프랑스의 칼빈 식 가톨릭과 네덜란드의 칼빈 식 개신교는 모두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성도의 미래를 예정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은 어차피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양심도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게 되었다.

프랑스와 여타 유럽 국가에 한번 갔다 온 청년들은 선과 악을 보는 관점이 자신의 조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창녀들의 어미’ (계 17:5)는 1492년부터 1922년까지는 미국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미국의 젊은이들을 유럽에 36개월 간이나 와 있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해서는 하나님과 성경과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펴뜨리기 시작했다. 발람의 계략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을 휩쓴 죄의 물결은 그 여파가 빠르고 강했다. 거센 물결이 바닷가를 부딪치고 물러가자, 1930년대까지는 그래도 옛날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예전보다 더욱 타락한 유럽을 경험한 세대(1941~1946)가 또 유입되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아닌 mammon을 섬기기 시작했고 베이비붐을 일으켰다. 그 아기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아닌 텔레비전⁴의 영향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1964~1969년 사이에 미국을 휩쓴 죄의 물결에 편승하여 자랐다. 이제 미국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⁴ 언론과 방송에도 도덕적이고 건전한 내용이 많다고 항변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지 자문해 보라.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일부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도 모두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보다만 더 건전하면 되는가?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전 부라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잣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보다만 나으면 된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읽으며, 잡지를 뒤적이고 요즘 유행을 살펴보면서 올해는 세상이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관찰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상이 바로 ‘작년’에 지니던 수준을 선택하여 그 노선을 간다. 그리고는 자신은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지낸다고 생각한다.⁵

이제 무슨 말인지 다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떤 그리스도인 여성이 30년 전의 사람들을 경악하

⁵ 이런 경향은 크리스천 음악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세속 음악이 스타일을 한 단계 바꾸면, OCM 그룹들은 그 지난 유행을 뒤쫓아 간다. 세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세상과는 딱 한 발짝만 떨어져 가는 셈이다. 가령, 디스코보다 더 최악인 ‘크리스천 디스코’는 5년쯤 뒤에 나타났었다. 1990년대 중반엔 동성애를 하지 않는 남자가 귀걸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2000년대 중반에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이로 미뤄 볼 때 2010년대 중반에는, 만약 주님께서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남자와 은사주의 목사들도 귀걸이를 버젓이 하고 있게 될 것이다.

게 했을 수위의 수영복을 입고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수위의 수영복을 입은 다른 여인을 정죄하는 격이다. 다음의 일련의 변화를 생각해 보라.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자료이다.

1900년: 구원받은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 남녀가 같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만 보고서도 그들을 경멸했다. 그때는 불신자도 몸을 완전히 가리는 두툼한 옷을 입고 수영을 했는데도 말이다.

1920년대: 불신자 여성이 바지 위에 헐렁한 치마를 덧입고 수영을 했다. 구원받은 여성은 몸을 완전히 가리고 남성과 함께 수영을 했으며, 불신자들을 경멸조로 쳐다봤다.

1940년대: 불신자 여성의 수영 복장에서 바지가 사라졌다. 속 옷 바로 위에 치마를 걸쳤으며, 옷옷 부위에는 소매가 없어졌다. 구원받은 여성은 바지 위에 헐렁한 치마를 덧입고 수영을 했으며, 불신자들을 경멸조로 쳐다봤다.

1960년대: 불신자 여성은 치마도 없애고 이제 몸에 꼭 끼는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복장을 세상에서는 비키니 내지 투피스라고 부른다. ‘수영용 속옷’ 보다는 어감이 더 멋있기 때문이다.) 이제 구원받은 여성은 수영할 때 바지를 안 입고 속옷 위에 바로 치마를 걸치며, 옷옷에 소매가 없어졌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경멸조로 쳐다봤다.

1990년대: 불신자 여성의 수영복은 속살이 비치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 보이는 수준까지 갔다. 구원받은 여성은 치마를 없

애고 몸에 꼭 끼는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복장을 세상에서는 비키니 내지 투피스라고 부른다. '수영용 속옷' 보다는 어감이 더 멋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경멸조로 쳐다봤다.

변화의 양상은 명확하다.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막나가는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과 동일한 노출 수준으로 가지 않게 막아 주는 기간은 고작 10~20년에 불과하다. 세상이 그 기준을 완화하면 교회도 기준을 덩달아 완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정한 옷차림의 정의를 10년마다 변경하실 리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수시로 바꾸는 건 어찌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기독교계가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텔레비전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자신의 구원자보다는 자기 동료를 기쁘게 하기를 훨씬 더 원하며 지내기 때문이다.

로마서 12:1을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통념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원하신다. 그리고 친구나 학교 동료나 잡지나 쇼핑 광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구절로 미뤄 볼 때 자신

의 옷차림이 응당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40년대에 세상에 통용되었던 기준이라면 2010년에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기준이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따라도 된다는 건 아니다.

우리의 위로자께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주관하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싶어하신다. 우리가 지식적인 교리만 성경대로 믿고, 실질적인 교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싶어하신다.

고린도전서 6:19-20을 보자.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소유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회도, 교회도, 목사도, 우리의 느낌도 아니다.

골로새서 3:17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아침에 집을 출발하여 길거리로 나갈 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몸을 꾸민다.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어색함이 없도록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필자는 세상과 섞여 있을 때도 내 자신이 남에게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를 원한다. 스포츠 팀이나 회사 부서나 동호회 등의 소속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이다. 그러니 남에게 품위 있고 호감이 느껴져 보이기를 원한다. 필자는 내 옷차림이 복음과 어긋나 보이지 않기를 원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뒤의 결과와는 더욱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자를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필자는 패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자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필자는 권위에 반항하는 티를 내는 옷차림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 필자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필자 역시 벗은 차림으로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세상보다만 약간 나은 정도의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이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일 2:15-17)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 사람들은 무어라 주장하나

필자는 남의 의견에 이끌려 살고 싶지 않으며, 그들이 필자의 의견에 이끌려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무엇이든 그저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제 필자는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주장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성경에 안 나온다.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주장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다. 단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일 뿐이다.

1. 바지를 입는 여성은 배도한 사람이거나 창녀이다.
2. 트임이 심한 치마는 착용자의 문란한 성 관념을 나타낸다.
3. 단추가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
4. 결혼 반지를 비롯한 각종 보석류는 죄악이다.
5.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건 곧 창녀처럼 치장하는 것이다.
6. 굽이 없는 구두만 신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음란함의 표상이다.
7. 여자는 모자나 너울 등을 써서 머리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8. 디모데전서 2:9에 나오는 ‘단정한(modest)’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허리를 조이지 않음’을 뜻한다. (이게 제일 압권이다. 당신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장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다.)

9. 보석류로 치장을 하고 있는 남성은 동성애자이거나 그런 성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10. 검은 의상은 사탄주의자의 상징이다. 남자가 파스텔톤 색상의 의상을 하고 있는 건 동성애자임을 뜻한다. 혹은 다른 어떤 색은 창녀를 상징한다(일부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밝은 계열의 색이라 하며, 메노파 교도나 아미쉬 등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색을 내세운다).

독자 중에는 위의 항목의 전부나 일부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여 근거 구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 주장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비쳐 봤을 때 어느 것도 참이 아니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곧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옷차림에 대해서 큰 원칙만을 다룰 뿐 세부적인 옷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곳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죄가 없던 시절에는 그들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

지 않았다(창 2:25). 왜냐하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딤후 1:15)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도 음탕한 생각과 욕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발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남자가 여자를 볼때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사람의 몸 자체에는 죄가 전혀 없지만,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즐기라고 주신 선물은, 인간을 죄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속박하는 통로로 전락한다.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따라다니는 법이다.

둘째,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창 3:7)

아담과 이브는 여전히 상체와 다리가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은밀한 부위라고 생각한 곳’을 가렸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단정함(modesty)의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단정함은 정글에서나 해수욕장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러자, 알몸에서 겨우 아쉬운

대로 옷차림을 한 아담 부부는, 다시 한 번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창 3:10) 필자는 여러분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길 원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단정치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줄 훌륭한 설교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성경이 인류의 옷차림 문화에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사람은 아슬아슬한 옷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을 만드신 분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남이 보는 곳에서 맨살을 버젓이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창세기 3:21에서 주님은 친히 단정함의 기준을 정하시고, 타락한 인류에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가죽옷(coat)을 만드셨다. 겨우 앞치마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몸을 완전히 가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⁶

정직한 마음으로 본문을 일관성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형태를 알 수 있듯(이성간의 일부일처), 그들의 예를 통해 하나님께서

옷차림에 관해 인간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는지도 배우고 알아야 한다. 성경은 구체적이지 않다. 소매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창세기에는 무릎 길이나 발목 길이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옷을 통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모두 상체와 하체를 모두 가려 주셨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마귀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의 끔찍한 상황은 마가복음 5:3-5에 묘사되어 있다.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27절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그는 벌거벗은 채 지내고 있었다.

⁶ 필자의 글의 교열 위원 중 한 사람이 앞치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부엌일을 하는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도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옷을 가리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앞치마를 착용한다. 앞치마는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신체의 전방만을 가리는 의상이다(등이나 엉덩이를 가리지는 않으며, 전방을 다 가려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아담 부부가 만든 앞치마도 전방만을 가리는 길쭉한 형태였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는 ‘윗옷’을 뜻한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 잔악무도한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자 목격자들이 어떤 점을 인상적으로 보았는지에 대해, 성령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자 군중은, 평소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주목하였다. 그 사람에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만으로도 적절한 옷차림은 그에게 저절로 이뤄진 것이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는 어떨까? 그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다. 그리고는 예전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는 공공장소에서의 맨살 노출에 대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걸 깨닫자 그는 즉시 옷을 꺼내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요 21:7)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필자가 앞서 언급한 바를 잊지 말기 바란다. 이는 언어나 민족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그들은 벌거벗기 시작했다.

성령님은 새 몸에 대한 소망에 대해 언급할 때도 이 간단한

사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일깨운다. 영적인 진리를 물질적인 진리에다 비유하여 묘사하신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니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

셋째, 성경에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심리를 갖는지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있다. 예레미야애가 3:51을 보자.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남자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며, 그것이 여자일 경우 더욱 그렇다. 물론 이 구절의 직접적인 문맥은 고난이지 웃차림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합쳐져서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여자를 봤을 때 남자의 마음은 가장 동요하게 되며,⁷ 이 사실은 그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라도 변함없다. 남자의 생각과 행동은 여자가 시각적으로 끼치는 감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듣는 것으로부터 감흥을 받는

⁷ 세계의 어느 군대라도 여자를 전투 병과로 배치하지는 않는다. 그랬다가는 그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병력을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건넸고, 남자는 먼저 타락한 자기 아내를 위해 과일을 먹지 않았던가. 그리고 성경의 아가서도 좋은 예이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를 읊조린 끝에 여자는 남자에게 반한다. 아주 예쁜 여자가 있고 그 곁에 형편없게 생긴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작업은 말만으로는 안 되고 돈이 좀 필요하겠지만)

포르노는 남자용이다. 사랑 연가는 여자용이다. 외설 영화는 남자용이다. 로맨스 소설은 여자용이다. 음란한 옷차림은 남자용이다. 선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씨구려 잡지들은 여자용이다. 이브의 후예들은 듣기를 원하며 아담의 후예들은 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이 진리임은 온 세상이 아는 바이다.

그러니, 남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사랑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하나님은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나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

으셨느니라.”(롬 14:12-15)

나는 당신이 그런 옷차림을 한 동기에 대해서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당신도 내가 유혹을 받은 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좋다. 우리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 당신의 자극적인 옷차림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되고, 내가 당신을 자꾸 응시하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된다고 서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옷차림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내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을 당신이 감안할 줄 안다면, 당신은 나를 파멸하지 않고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의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이다.

이건 옷의 재질이 무엇이냐, 헴라인을 줄였느냐, 단추냐 지퍼냐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문맥이다. 문제의 본질은 입을 옷과 못 입을 옷을 형식적으로 가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무슨 옷을 입든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지 않게 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요컨대 당신이 주변의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옷차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눈이 이런 것에 관해서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 5:27-28)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막 9:47)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특히 남성)은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눈을 빼 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그러니 여성은 자신의 옷차림과 품행에 사랑이 결여될 경우, 남성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는 옷차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까? 사실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8-10)

우리는 이 말씀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은 분명한 결론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같은 불분명한 추측의 안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8절에 따르면, 거룩한 남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의 영의 주관 하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니 여자도 ‘이런 식으

로' 살라는 권면이 나온다. 그러니 단정함에 대한 권면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다음 단계로 나옴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의 옷차림을 결정한 여성과, 쇼핑몰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옷차림을 결정한 여성은 모습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여성에게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관심을 둘 것을 요청한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핵심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더 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벧전 3:1-4)

이런 신약 성경 말씀이 그저 시시콜콜하게 입어도 되는 옷과 입으면 안 되는 옷을 가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온유하고 정숙하며 변질될 수 없는 은혜가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편에서 보이는 것을 사람 편에도 보이게 하면 된다. 어려울 것 없다. 이것

이 그 말씀의 본질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이다.

자주 오용되곤 하는 사무엘기상 16:7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말은 사실이다. 인간은 외모를 본다는 말도 사실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디모데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보석류나 장신구 착용이 잘못되었고 머리 모양을 꾸미는 것도 악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3을 잘 보면, 옷을 입는 것 자체도 동일선상에 포함되어 있다. 머리를 땅지도 말고 금으로 치장하지도 말아야 한다면, 옷 자체도 아예 입지 말아야 한다.

자기 머리를 땅든 액세서리를 착용하든 무슨 옷을 입든 그것은 죄가 아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보다 외모에 더 집착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몸에 하는 일체의 치장이 죄악이라고 하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수련회에서 설교자가 흥분된 어조로 머리 스프레이, 아이라이너, 커프스 단추, 하이힐 따위를 격렬하게 정죄하면, 뭔가 열정이 있는 설교로 청중들의 기억에 각인된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성경은 그런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다. 성경에

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어떻게 꾸며 주시는지를 읽어 보았는가? 그분은 그녀를 아무 흠이나 점이 없게, 다시 말해 죄가 전혀 없게 하신 후, 아름답게 단장하신다. 시편 45:13-14를 보자.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계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계로 인도되리니”**

신부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다. 이 얼마나 화려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주로 된 문과 벽옥으로 된 성벽이 있는 황금 도시가 나온다. 그런데 21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도시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눈에 당장 뿔 정도로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신다면, 여성이 자신을 산뜻하게 꾸미고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것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놀랍게 들리는가? 독자의 사사로운 의견을 내려놓고, 생각의 기준을 성경에다 맞춰 보기 바란다. 세련되고 깔끔한 외모를 갖추는 건 죄가 아니다. 옷을 아름답게 잘 차려입는 건 죄가 아니다. 자신의 머리와 얼굴 모양을 신경 쓰는 건 죄가 아니다. 자기 삶의 행실보다 자기 외모에 더 집착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두 번 등장하는 옷차림 관련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주위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정

말 희한한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을 접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자매: 바지를 입지 않으며, 길고 헐렁한 원피스 치마만 입는다. 몸의 윤곽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 하여 스커트도, 블라우스도 입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수다가 심하고 뒤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좋아하며 집에서도 시끄럽다. 사실 그녀는, 옷차림에 대해 다루는 신약 성경 말씀 두 곳도 이미 모두 어겼다.

B 자매: 투피스 치마를 입지만 웃웃 아랫부분을 치마 안에 다 집어넣지는 않는다. 그리고 치마에는 트인 부분도, 단추도 없다. 그녀는 머리 염색을 하는 사람에 대해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고 틈만 나면 경멸했으나, 그로부터 몇 년 뒤엔 자신도 머리를 염색했다. 그녀는 일체의 화장이나 분장이 모조리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뒤에서 몰래 헐뜯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와 남과는 다른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이 자매도 옷차림에 대해 다루는 신약 성경 말씀을 모두 어겼기는 마찬가지이다.

C 형제: 남자가 장발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직 30대인 그는 히피족과 대면한 적이 없다. 이 형제와 만난 히피족이라면, 장발을 정죄하는 그의 거듭된 설교에 질려서 아마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자의 장발을 금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을

강경하게 고집한다.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는 미용실에서 자기 머리카락이 딱 어깨까지만 내려오게 커트를 하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성경에 근거해서 남자가 머리를 짧게 해야 한다는 건 알면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그 근처에 있다는 걸 부부가 모두 모른다. 읽어 본 적이 없거나 읽었더라도 그 문장은 간과한 것 같다. 그들의 편견이 성경의 이해 범위를 제한한 셈이다.

D 형제: 이 가련한 친구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도 먼저 웨이트리스를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앞뒤로 다 훑어보야 직성이 풀린다. 밖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주변에 적당히 중간 정도의 매력이 있는 여성들을 모조리 아줌마나 할머니급으로 매도해 아내를 당황하게 한다. 교회에서 목사가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 설교하면 그는 몹시 불쾌해하고 역정을 내며, 그런 설교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 ‘율법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다 안다.

E 자매: 이 자매의 딸들은 여성의 단정한 옷차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완벽한 모범 사례이다. 한때 그들은, 조끼를 걸친 블라우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차림이라고 주변에 강조하고 다녔다. 그러나 1980년대가 지나고부터는 스타일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이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E 자매의 “하나님”은 이런 식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한동안 여자의 화장을 금지하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외도를 하는 게 발견되자,

하나님은 기혼자에 한해서 화장을 허용하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년간 손톱 화장과 목걸이를 금하셨는데, 그녀의 딸 중 하나가 좀 개방적인 성격으로 자라자 그런 것들도 곧 허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때마다(그러니 E 자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자매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며, 그녀의 딸들이 그 증거라고 한다.) 그녀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렸던 경솔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법이 없다. 자기 편한 대로 기준을 혼자 슬쩍 바꾸어,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독자 노선을 갈 뿐이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의 다른 자매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F 형제: 주변의 모든 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남자가 카우보이 장화나 철테 안경이나 흰색이 아닌 색으로 된 셔츠를 착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가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착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면, 열화와 같은 ‘아멘’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런 게 왜 문제였는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이유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딱한 사례인 G 자매가 있다. 그녀는 길고 험렁한 전통적인 원피스 치마의 매니아이다. 이 복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식탐이 야기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감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매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는 다행히 자기 남편밖에 모른다나 어쨌다나.

이렇듯, 옷차림을 적절하게 갖춰서 몸을 다 가리고, 욕욕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복장으로 얼마든지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단정한 옷차림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신 것이다.

가증한 것들

‘가증한 것’을 뜻하는 “abomination”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성경에서 단수형으로는 총 71회가 쓰였고 복수형으로는 76회 쓰였다. 여기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지 다음과 같은 예를 몇 가지 제시한다.

- 자녀들을 불태워 가나안 민족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 동성애
- 수간 (짐승과의 성행위, 레위기 18장)
- 마녀, 마술사, 강신술사 (신명기 18장)
-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 (신명기 29장)
- 마귀들에게 희생물 바치는 것 (신명기 32장)

● 이성의 옷을 입는 것 (신명기 22장)

물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에 전혀 매여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니 필자는, 율법을 취사선택하여 이 100가지 조항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반면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자는 반드시 바지만 입어야 하고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파적인 설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동성애와 수간을 금한 기록을 신약 성경에다 남기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런 관행은 신약 성경에서 죄악과 정욕에 대해 언급한 다른 부분과 비춰 봤을 때 타락이라고 충분히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리는 만무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필자는 신명기 구절을 근거로 이를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신약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조항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

하시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하고 구차하게 언급하기도 민망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반복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다. 남자에게 속하는 옷과 여자에게 속하는 옷을 가르는 기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준을 문란하게 하는 자를 돌로 만든 우상에다 기도하거나 마술을 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세기 동안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쳐 온 서양에서는, 가장 타락하여 갈 데까지 간 소수의 집단만 제외하면 이 기준이 역시 예외 없이 통용되었다.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 누구라도 남자가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모습을 본다면 변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그 남성은 보이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에게 속한 옷을 입었다. 여자에게 속한 옷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이라면 관념적으로 알며,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사람은 관념적으로 안다. 여장을 한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장을 한 여자에 대해서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동일한 시선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럼 누가 바꾸었는가?

미국에 있는 관광지나 휴게소와 공원 같은 공공장소라든가 공항 같은 국제적인 시설을 생각해 보자. 그런 곳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많이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 앞에 “Ladies(여자)”나 “Gentlemen(남

자)”이라고만 써 놓으면 모든 사람이 성별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의미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이 쓰이는데, 남자는 바지를 입은 사람 모습이고 여자는 치마를 입은 사람 모습이다. 이 그림을 보면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입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국이나 서양이라는 지역을 초월한 문화 규범을 사람의 마음에다 심어 놓으셨다. 이런 관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난 성별 구분 같은 건 신경 안 써요.”라고 대답하는 독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나 마술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누군가가 동물과 수간을 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작정인가? “아, 제임스 형제님,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라고 당신은 항변한다. 왜 그럴까? 당신은 율법에서 어떤 건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건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⁸ 문제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구절이 뿌리를 두고 있는 배경이다.

“예수님은 내 혼을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나로

⁸ 필자는 어떤 여성이 바지를 입고서 해리 포터의 책에 대해 의분을 토하는 걸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네가 율법을 어긴 건 사탄적이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다” 같은 맥락.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하여금 내 자신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지를 결정할 권리는 그분에게 없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 같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사실이다!

이 생각을 일반화하여, 필자는 신명기의 옷차림 규범을 불필요한 구약 율법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한다. 신약 서신서에 다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조를 유지하겠냐고 말이다. 그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반대로, 필자는 신명기의 옷차림 규범이 구약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 남자와 여자의 옷에 대해서 규정하는 또 다른 율법 조항은 왜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말이다. 신명기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그 구절 말고 더 있다. 설마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율법에 옷에 관한 구절이 두 개가 있다면, 한 구절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도 적용해야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 필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와 여자에게 지정해 주신 옷차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알려 드리겠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네 몸을 덮는 데 쓰는 네 의복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신 22:5, 11-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민 15:38-40)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복장을 하려면,

1. 남자와 여자의 의상이 서로 달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2. 옷은 단일 직물로만 되어 있어야 하며 (혼방 직물은 안 됨)
3. 모든 옷에는 귀에 술이 달려 있어야 한다.
4. 옷은 네 방향으로 바느질되어 있어야 한다.
5. 술은 청색 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독자들이여, 이제 좀 진실을 알 것 같은가? 하루에 아침 · 점심 · 저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노

⁸ 필자는 어떤 여성이 바지를 입고서 해리 포터의 책에 대해 의분을 토하는 걸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네가 율법을 어긴 건 사탄적이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다” 같은 맥락.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릇이다.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율법이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시도는 성경에서 아무 구절이나 문맥 무시하고 뽑아 와서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짓으로밖에 간주되지 않게 된다. 독자 중에 그럴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날 존재하는 어느 기독교계·교파 중에서도 위의 다섯 조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은 알지 못하며, 그런 게 존재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마음

필자는 합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현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1. 관능적이고 야한 여자는 자신이 뭘 입든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2.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라도, 자신이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간파하지 못하여 부지중에 자극적인 옷차림을 할 수 있다.

3. 여자가 옷차림을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게 되기 마련이다. 복장이라고는 아무 특징도 없는 평범한 옷에 검고 긴 양말과 모자가 전부인 아미쉬 공동체 내부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을 느끼고 서로 연애를 하게 마련이다.

4. 옷차림 같은 외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영적으로 아직 어

린 그리스도인이나 복음을 들으러 온 세상 불신자들을 아예 내쫓기까지 할 정도가 되어 버린다면 당신은 균형을 상실해 있다. 옷차림 얘기를 늘어놓느라 정작 그들이 하나님ی 어떤 분이신지 듣고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딱 갈라지는 외형 기준을 원한다.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을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 판단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옷차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그걸 구체화해서 강경하게 설교한다. 그러지 않으면 동료 목사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고는, 내가 뭔가 절충이나 타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여자는 여자다운 옷만 입으며 살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 일부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필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도 모두 쉽게 재반박 가능해 보인다.

-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떤 옷차림이 좋을까? 지난 수세기 동안 당신의 증조·고조할머니는 청바지 없이 지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성경에는 옷차림에 대한 언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속옷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 언급도 없다. 만약 여성이 입는 치마가 충분히 길고 충분히 헐렁하다면, 그 안에 추위를 막을 내복류를 얼마든지 입어도 문제될 게 없다. “추울 때는 여자도 바지를 입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변명하는 진영은 추위가 풀린 뒤에도 계속 바지를 입으니 이 또한 우스운 일이다.

● 여자라도 그 특성상 근무 중에 남자처럼 차려입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아예 동성애와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을 연기하는 직업은 애초에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며, 필자는 겨우 밥벌이를 위해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맘몬 때문에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는 행동조차 불사할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 나이의 어린 소녀들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처럼 차려입고 밖에서 뛰노는 걸 갖고서, 이진 성경이 말하는 여성스러운 복장에 위배된다고 트집을 잡을 고지식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여성처럼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여성의 본분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필자의 노선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 굳기가 빠져 보이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교조주의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노선만을 갈 뿐이다. 그것만이 은혜 · 사랑이 진리 · 공의와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필자는 맨 앞에서 예를 들었던 10개의 리스트에 대해 답변

을 할 것이다. 답변을 보기 전에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해 보기 바란다. “내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고, 옷차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어떤 설교나 책자를 접한 적도 전혀 없을 때, 이 항목들에 대한 근거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항목은 그저 인간의 의견일 뿐이다. 유익한 좋은 의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양가 없는 나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의견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처음에 언급했던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다.

1. “바지를 입는 여성은 배도한 사람이거나 창녀이다.”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낭설일 뿐이다. 필자는 차를 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밖에서 거리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창녀들을 봐 왔다. 하지만 바지를 입은 창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다.

2-3. “트임이 심한 치마는 착용자의 문란한 성 관념을 나타낸다.” “단추가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 우리 제발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 치맛자락이 15cm쯤 찢어져 있고 블라우스에 단추가 달린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저 여자는 자기를 유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야말로 영과 감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아마 정신병원에 좀 가 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이런 설교까지 있다고 하니 말 다 했다. “트임이 옆면에

있는 건 ‘나와 같이 다녀요’란 뜻이고, 트임이 뒤에 있는 건 ‘날 따라와요’라는 뜻이다. 트임이 앞에 있는 건 ‘난 만만한 여자예요’라는 뜻이다.” 당신이 저런 말을 접한 적이 전혀 없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당신이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저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과대망상을 의심해야 할 것 같다. 그 과대망상은 여자가 제아무리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4. “결혼 반지를 비롯한 각종 보석류는 죄악이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보석으로 잔뜩 치장하시고는 그가 그의 모든 길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보석을 사랑의 증표로써 주신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은 교회의 예표인 아내 리브가에게 팔찌를 줬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례를 남기셨다면 우리 역시 이를 따라야지 뒤집어엮어서는 안 된다.

5.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건 곧 창녀처럼 치장하는 것이다.” 이세벨이 얼굴 화장을 했으니, 화장을 하는 여자는 다 이세벨 같은 여자라는 식의 논리이다. 어떤 목사는, 여자가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는 이브가 붉은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자들은 정작 자신은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이를 닦으며 로션을 얼굴에다 바르면서,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치장을 한다고 강단에서 그들을 정죄하니, 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날 필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을 만나, 왜 당신의 아내는 거드랑이털을 깎고 얼굴의 잔털을 밀면서 하나님께서 주

신 본연의 모습을 바꿔 버렸는지 묻은 적이 있다.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자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만약 여자가 외모를 개선하려는 일체의 치장을 해서는 안 된다면,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제대로 해야 한다. 머리빚, 치약, 면도기 따위도 모두 내다 버려야 한다.

6. “굽이 없는 구두만 신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음란함의 표상이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는가? 딱 한 군데?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게 모든 자매들의 복장을 ‘검열’ 해서 고작 그런 잣대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면, 당신은 정말 천박하고 속좁고 영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7. “여자는 모자나 너울 등을 써서 머리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책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⁹

8. “디모데전서 2:9에 나오는 ‘단정한(modest)’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허리를 조이지 않음’을 뜻한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이 아니다.

9. “보석류로 치장을 하고 있는 남성은 동성애자이거나 그런 성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자가 보석류를 착용하는 게 뭐가 그리 나쁜가? 죄인의 예표인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자, 하나

⁹ 이 부분은 의복에 역사에 대한 것으로 원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역주

님의 예표인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 줬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동성애자인가? 요셉(창 41:42)과 다니엘(단 5:29)도 금 목걸이를 했다. 이게 잘못되었는가? 성경보다 더 앞서 갈 필요는 없다.

10. “검은 의상은 사탄주의자의 상징이다. 남자가 파스텔톤 색상의 의상을 하고 있는 건 동성애자임을 뜻한다. 혹은 다른 어떤 색은 창녀를 상징한다.” 사탄주의자들뿐만 아니라 1800년대 이래로 위대한 설교자와 선교사들도 다 검은색 복장을 하고 다녔다.

먼 옛날, 필자가 이제 막 구원받았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그때 필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었고 주변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 시절에는 라디오 설교를 들어 봐도 설교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달리 더욱 좋았다. 아직 필자 자신도 성경과 교리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라디오만 틀면 나의 구원자에 대한 소개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듣는다니 그걸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필자가 가장 좋아하던 설교자는 올리버 그린(1915-1976)과 레스터 롤로프(1914-1982)였다. 롤로프 형제의 설교를 5개의 채널에서 들었으며, 어떤 때는 하루에 5번 진행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4개나 일부러 반복해서 듣기도 했다.

그런데 고맙게도 롤로프 홈즈가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필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그 집회에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 설득하며 매달렸다. 그래서 세 명을 동반하게 됐다. 잭 구원받은 18세 청년과 어느 부부. 이렇게 세 명이 필자의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달려서 집회에 갔다. 기독교식 예의를 차리기 위해 이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복장을 했다. 남자들은 말쑥한 청바지에 단추를 채운 셔츠를 입었고, 여자는 유일한 드레스 차림인 청바지 재질의 원피스(jean jumper) 치마를 입었다.

여성 합창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증언하니 기뻐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저렇게 바뀌었을 것이고, 내 친구들도 오늘 밤에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필자의 심정은 흥분 그 자체였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다. 기대로 인해 가슴이 쿵쥔거리며 뛰었다. 필자의 친구 세 명이 복음을 전해 듣고 아마도 구원받게 될 순간이 임박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설교자는 세속의 타락에 대해 성토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일행을 내려다보더니(우리는 맨 앞에서 3~4째 줄에 있었음)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까지 청바지 재질의 옷을 입고 버젓이 들어오는 자가 있다니,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자 회중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고, 그런 이교도들을 강대상으로 불러내어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설교자는 분위기에

편승해 그 마녀사냥을 진짜로 하고 말았다!

차라리 그가 공개 석상에서 필자의 따귀를 때리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필자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필자의 초대를 받은 지인들은 복음이라고는 듣지 못한 채 완전히 모욕만 당하고 돌아갔으며, 그 중 두 명은 그 후로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은 1977년에 있었던 실화이다. 그 설교자는 두 명의 혼을 지옥으로 거의 확실히 보내 버리는 것도 불사할 정도로 자기 지론을 강경하게 고집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까지도, 그 가련한 설교자의 지론의 근거를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발견하지 못했다.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보았다. 훌륭한 여성이 옷차림은 좀 잘못 했지만 복음을 전한다. 혹은 훌륭한 여성이 옷은 단정하게 입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어디 그 뿐인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 옷차림도 잘못 하는가 하면 그런 여성이 옷차림은 훌륭한 경우도 있다.

영적 깊이가 부족한 어린 그리스도인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 기준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그것만 하면 남보다 우월하고 영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그제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손쉽게 꼬리표를 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 생활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쉽게 분간되지 않는다. 똑같은 의의 사역자

라 해도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도 있고 사탄에게 속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만을 맺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만 일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지만 둘 다 동일한 액수의 일당을 받는다. 이런 게 신앙 생활이다.

필자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러하다. 필자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화에 끼친 영향의 내력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남자의 옷차림이 어떠해야 하고 여자의 옷차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그 구분이 문란해지는 것에 대해 착잡함과 우려를 느낀다. 필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옛 전통(살후 2:15)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진심으로 확신한다. 그 전통엔 옷차림도 물론 포함된다. 하지만 필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서 성경이 칼로 자르듯이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처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릴 일이긴 하나, 각 개인은 양심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